

# 장흥군, 코로나19 '자치경찰 TF팀' 운영

### 지역사회 감염 제로화 위해 선제적 대응 나서 17일까지 장례식장·식당·교회 등 집중점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두 달 가까이 지속 중인 가운데 지역 사회 감염 제로화를 위한 장흥군의 선제적 대응이 눈길을 끌고 있다.

장흥군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간인 1월 5일부터 17일까지 2주 동안 안군 산하 직원들로 구성된 코로나19 '자치경찰 TF팀'을 시범 운영하여 장례식장, 식당, 교회, 터미널 등 코로나19 확산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자치경찰 TF팀은 올해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예정인 '자치경찰제' 도입에 앞서 시행 초기의 혼란과 시행 착오를 줄이고, 코로나19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장흥군은 주거 밀집 지역에 발판소독매트 및 군 청사 외부에 이동 민원인 상담실 설치, 소독약 무료 배부, 대학생 호루라기 방역단 운영 등 빈틈없는 방역 활동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지역 내 감염자가 없는 '코로나19 청정 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이번 '자치경찰 TF팀' 시범 운영으로 한발 앞선 행정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준순 장흥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 군민이 힘들고 지쳐 있는 상황에서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자치경찰 TF팀' 운영 등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코로나19는 조금만 방심해도 급속도로 재확산될 수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준순 장흥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 군민이 힘들고 지쳐 있는 상황에서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자치경찰 TF팀' 운영 등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코로나19는 조금만 방심해도 급속도로 재확산될 수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장흥=김도영기자

# 겨울철 별미 '완도 매생이' 본격 채취 고급·약산 329어가...전국 생산량 70% 차지

겨울철 별미인 '완도 매생이'가 본격 채취되고 있다.

6일 전남 완도군에 따르면 고급 면과 약산면 329어가에서 매생이 채취가 한창이다. 총 시설량은 1만 466책으로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생생한 이끼를 바로 뜬다'는 뜻의 순우리말인 매생이는 청정해역에서 자라는 무공해 식품이다.

특히 완도 매생이는 정화작용과 생리활성촉매 역할을 하는 맥반석 해역에서 자라 이물질 없이 깨끗하다.

매생이는 비타민 A와 C, 칼슘, 칼륨, 단백질 등이 풍부하고 우유보다 40배 많은 철분을 함유하고 있어 빈혈 개선에 효과가 있다.

또 식이섬유가 풍부해 체내 독소를 배출하고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매생이는 겨울철에 굴을 넣어 튀어 먹거나 전으로 즐겨 먹는다. 요즘엔 마른 매생이를 라면에 넣



어 먹는 요리법도 선보인다.

정약전의 '자산어보'에는 매생이를 '누에 실보다 가늘고 쇠털보다 촘촘하며 길이가 수척에 이른다.' '맛은 매우 달고 향기롭다'고 수록돼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달의 수산물로 매생이를 선정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매생이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채취한다"며 "긴강에 좋고 한입만 먹어도 따뜻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매생이 요리로 겨울 밤상을 차려보기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기자



# 진도군, 인구 3만1000명 회복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 한 몫 다양한 출산·전입장려 지원시책 마련

진도군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펼치고 있는 '내 고장 내직장 주소 갖기' 범군민 운동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진도군은 지난해 10월 인구가 3만 233명으로 3만명이 무너질 위기였지만 올해 1월 초순 3만1,227명을 기록하면서 다시 3만1,000명 선을 회복했다.

진도군 인구는 1968년 최대 11만명에 달했지만 취업 인구 유출과 사망으로 인한 자연 감소율 증가로 5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군은 지역 인구구조의 불균형과 인구감소 문제의 총체적 위기를 인식하고 범군민 차원의 참여만이 인구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대대적인 '인구 늘리기 운동'에 나섰다.

인구 3만명 회복에는 공무원들의 노력과 군민들의 협조가 큰 몫을 했다. 진도군에서 직장에 다니거나 생활하면서도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기관·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전입을 독려했다.

우선 공무원들이 앞장서 전입 캠페인을 펴면서 주소를 옮기는 사람이 늘었다. 기관·사회단체·기업체 등을 방문해 전입할 경우 다양한 혜택 등을 알렸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총 1,275명이 전입했으며, 지난 1991년 이후 29년만에 주민등록 인구가 증가했다.

진도군은 지속적으로 인구 3만명을 유지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아직 미전입한 기관·단체·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 고장 내직장 주소 갖기 운동'을 펼쳐 전입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전입 장려금 인상과 마을별 전입 운동 포상제 등 인구 늘리기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진도군은 이러한 단기 대책과 함께 중장기 대책으로 추진 중인 군내면 신기리 귀농이주단지(100세대), 재외교포 귀향단지(280세대) 조성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진도군이 보유한 우수한 해상풍력 자원을 활용한 해상풍력단지 조성 과 풍력관련 연관사업 등 미래유망사업을 적극 유치,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LH 청년행복주택건설,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급, 청년 공동체 지원사업 등 청년들의 주거·결혼·문화·일자리 사업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진도=조상용기자

# 강진 '차이나는 배달소' 사회혁신 공모사업 평가 1위 우수사업 선정 노년층 대상 장보기 대행 등 이색 서비스 제공 주민에 호응

2020년 전라남도 주관 주민주도 사회혁신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차이나는 배달소'가 2020년 사회혁신 공모사업 평가 결과 1위로 우수사업에 선정되었다.

강진군의 '차이나는 배달소'는 2020년 주민이 주도하는 사회혁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 강진읍시장 장날에 6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장보기 대행, 물품보관 서비스 등 이색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지루한 버스 대기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코로나19 예방 교육, 건강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역 어르신들의 많은 관심과

큰 호응을 얻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차이나는 배달소는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불편을 주민이 주도하여 해결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주민의 적극적인 노력이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져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가는 사회혁신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우수 사업의 확산을 위해 전남 9개 시군, 10개 사업을 대상으로 서면, 현장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올해 '차이나는 배달소' 사업은 오는 1월 중순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강진=김영일기자



# 일감끓인 관광업계 종사자, 방역요원 선발 해남군, 땅끝·대흥사 등 주요 관광지 4곳 23명 배치 운영

해남군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 종사자를 관광지 방역관리요원으로 선발해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5일부터 땅끝, 대흥사, 미항사 등 주요 관광지 4곳에 방역요원 23명을 배치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선발된 관광지 방역요원은 여행업체 운영자 등 관광업에 종사하는 군민들로 코로나로 인해 생계와 사업체 운영 등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 군은 국비 7,500만원 외에도 자체 군비 1억 1,200만원을 편성해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 코로나 피해를 극복하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

관광지 방역요원은 관광지 방역은 물론 마스크 착용, 손도독제 사용, 2m 거리두기 등 전반적인 생활방역수칙을 지도하고 관광지 환경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오는 3월까지 운영 예정으로, 대흥사와 미항사에 부스 및 난방기 설치 등 방한대책마련으로 근무여건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 책과 함께 즐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